

<스위스編>

바텔·제네바研究所

— 美바텔과 同一系, 6部門으로 構成 —

바텔·제네바研究所는 美國內 바텔·콜롬버스연구소가 本部格이고 그 밑에 퍼시픽·노스웨스트연구소와 西獨의 바텔·프랑크푸르트연구소등 4大研究所가 체인이 되어 있다.

이들 연구소는 연구프로그램의 實施, 各國政府로부터의 委託研究등 콘트랙트 베이스에 의한 연구로써 그 實績과 能力이 널리 알려져 있다.

제네바연구소 이외의 다른 연구소는 各國政府로부터의 위탁연구가 많은데 比하여 제네바연구소는 產業界와의 緣結이 강한 것이 特徵이며, 民間企業으로부터의 위탁연구가 95~96%가 된다.

현재의 研究員은 650餘名이며 이들의 國籍은 數10個國에 이르고 있음이 이 연구소의 特徵이기도 하다. 이렇듯 多數國으로의 包容한 研究員의 特色은 한 테마를 연구할때 각각 그 出生國의 體質을 反映하는 獨特한 發想이 나오기도 한다.

이들 연구원은 대개 生業界에서 實務經驗이 있으며 技術뿐 아니라 市場分野까지도 精通한 經濟人이다. 이러한 專門家集團의 아이디어를 巧妙히 企業에 結付시켜 나가는 연구소의 管理組織은 各方面에서 關心의 焦點이 되고 있다.

이 연구소는 機械工學, 物理·電子, 冶金·無機材料, 電氣化學·資源化學, 應用化學·프로세스·엔지니어링, 테크노·에코노믹의 6部門으로 構成되어 있다.

各部門에서 테크노·에코노믹부문은 世界到處에 連絡網을 펴고 商品의 需給均衡의 動向등 市場分析, 各분야에서의 技術進步豫測, 消費者的 動向分析, 投資關係分析, 知識輸出의

仲介등을 통하여 利用者에게 最適의 데이터를 提供하는 한편, 研究活動方向 設定에의 底力이 대단하다.

研究部門 外에 연구소의 資料室도 定評이 있다. 여기에서는 化學品의 各國 生産, 消費動向을 把握하는데 필요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항상 새로운 자료를 正確히 把握하고 있다.

연구소는 제네바의 國際都市性을 活用하여 各 國際機關과 密接한 關係를 맺고 各국의 政治情勢에서부터 經濟情勢, 環境問題, 製品規制, 勞動問題등 最新의 情報를 入手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사업 가운데에는 商品의 市場間流通에 관한 委託研究등도 포함되어 있으며 總括的인 見地에서 볼때 精確한 判斷을 내리는데 매우 有利한 條件에 놓여 있다.

연구소의 業績中에서 人工肉의 開發과 製造技術은 好評을 받고 있으며 製빵技術등 食品技術도 傳統性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酵素關係도 많은 特許權을 갖고 있으며 醫學機器, 빌딩의 관리조직, 홀로링·플랜트, 自動車의 輕量化를 위한 表面處理, 히트 펌프에 의한 排熱利用의 自動車用쿨러및 家屋의 冷煖房등 産業全般에 걸쳐 많은 업적을 誇示하고 있다.

한편 石油, 電力産業設備에 대한 多角的인 技術評價, 農業을 相對로 한 新殺虫劑, 除草劑, 殺菌劑의 연구, 자동차의 電算系統을 集積回路利用에 의한 大幅的인 簡素化, 航空機 메이커와 輸送會社를 對象으로한 월드 에어가 야고의 未來豫測, 각종프로세스·플랜트의 기술예측, 北阿및 아랍諸國들의 家畜生産 動向과 飼料의 需給均衡의 예측등도 主要事業들이 다.